산모퉁이를 돌면

박경아/프리랜서, 前동아일보 기자

어린 시절, 순천이 그리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부근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된 일은 큰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필자가 초등학교 2학년인 70년대 초반 동네 여자아이들은 하얀 팬티나, 엄마가 만들어준 나이롱부루머 차림으로 개울가에서 멱을 감았고 어떤 아이들은 검정 고무신이 닳을까 봐 학교로 이어지는 아스팔트길 위를 걸을 땐 맨발로 다니기도 했다.

도시촌뜨기인 나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소 꼴 먹이는 거며, 칡잎을 접어 그릇 만드는 거며, 뱀머리를 보고 독이 있나 없나 구분하는 거며…. 근 3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절 추억들이 문득 문득 떠오를 때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기무덤 이야기다.

우리 동네에서 학교로 가는 길은 마을에서 시냇가를 따라 내려가다 철길 건너 아스팔트신작로로 연결됐다. 철길과 함께 나란히 달리는 신작로는 산모퉁이를 한번 돌아 학교까지 이어졌는데 몇 년전 그곳을 찾아 학교에서 마을까지 걸었더니 한 2km쯤 되는 거리였다.

집 방향이 같은 아이들과 함께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어느 날 산모퉁이를 도는데 아이들은 이 위에 아기무덤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관 대신 작은 항아리에 아기를 넣어 묻었는데 비만 오면 엄마가 보고 싶은 아기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애들다운 상상력을 덧붙인 얘기까지 해주었다. 어느 날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있다가 혼자 집에 돌아가는데 마침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신작로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차도 기차도 다니지 않았다. 산모퉁이가 가까워지면서 아기무덤 얘기가 생각나 점점 으스스해졌다. 산모퉁이를 도는 순간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에 공포감이 덮쳐오자 나는 철길건널목 앞에 있는 이발소 간판글자가 보일 때까지 정신없이 내달렸다.

초등학교 5학년때 다시 서울로 전학 온 뒤 거의 잊고있던 아기무덤 이야기가 자주 생각난 것은 내가 아기엄마가 된 다음부터였던 것 같다. 어린 시절 무섭기만 하던 산모퉁이의 기억은 어미가 되어보니까 의미가 달라졌다. 아기를 키워보니 아기는 복숭아보다 더 달콤한 살내음을 풍기고, 잠든 모습만으로도 가슴에 충만한 기쁨을 주는 존재였다.

이렇게 귀하고 어여쁜 아기를 보내고, 내 살과 같은 피붙이를 차가운 땅에 묻어야 했을, 그 아기의 어미는 얼마나 애통절통한 심정이었을까.

아기가 조금이라도 덜 외로우라고, 기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아이들이 웃고 떠들며 아침 저녁으로 오가는 길목을 고른 것은 아니었을까.

요즘 TV에서는 연일 눈물바다를 이룬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장면을 보여주고 신문들은 기구한 이별사연들을 전하고 있다. 별별 애달픈 사연 가운데 유난히 가슴 아리게 다가오는 것이 얼어붙은 대동강을 건너 피난오다 맨발에 나막신을 신은 네 살 아들과 헤어진 어느 할머니의 얘기였다. 아들과의 만남을 앞두고 할머니가 준비한 선물은 따뜻한 운동화와 양말이라고 한다. 발을 동동거리는 어린 아들의 모습을 50년 동안 가슴에서 삭이고 또 삭였을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 내 가슴이 다 저려온다.

그래서 자식 낳아봐야 부모심정을 안다고 했나. 나이가 들어가며 새삼스러운 게 부모이고 가족이다.

사람은 이래서 늙어도 사는 맛이 있나 보다. 잃어가는 육체의 젊음만큼 마음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